

번역을 이해하는 은유, 번역을 설명하는 은유 - 국내 번역가들은 번역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김 영 신
(안양대)

1. 서론

오늘날 번역학 연구는 그간 연구의 주종을 이루던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비교분석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한 주제들, 예를 들어 번역서의 생성과 소비를 둘러싼 문화, 이데올로기, 권력관계, 번역사의 지위 등 좀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같은 변화에서 번역을 보는 학계나 일반의 시각이 꾸준히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는 많은 것을 함의한다. 왜냐하면 번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실제 번역 상황에서 번역가가 취하는 전략이 달라질 것이고, 좀 더 거시적으로 말하자면 번역가의 직업적 위상마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번역을 보는 시각을 번역에 대한 개념 은유

(conceptual metaphor)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레이코프와 존슨(1980)의 개념 은유 이론을 이용하여, 한국의 전문 번역사들이 번역이라는 활동과 번역가라는 직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대중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레이코프와 존슨에 따르면 은유는 단순한 수사적 꾸밈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은유는 하나의 사고 영역을 또 다른 사고 영역으로 개념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의 사고체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은유는 우리의 인지작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와 태도 그리고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념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번역의 본질에 관련하여 전문 번역가들이 사용한 은유를 수집·분석한다면, 이들이 번역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정의가 어떤 함의를 가지는 지에 대해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들이 번역을 정의하는데 사용한 은유를 통해 이들의 인식의 구조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 번역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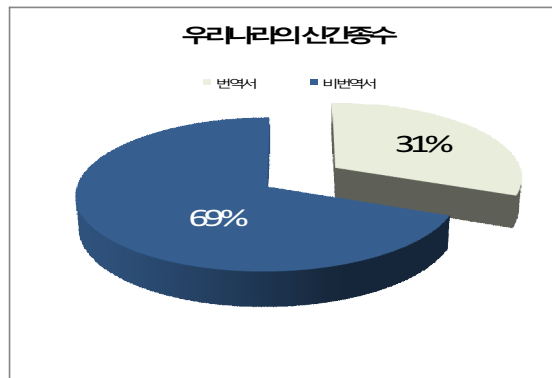
2.1. 왜 번역가를 연구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 번역가들이 번역이라는 활동을 어떤 은유를 통해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레이코프와 존슨의 개념 은유 이론을 생산적으로 원용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왜 우리가 번역가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오늘날 번역학 연구에서 번역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로는, 번역가에 대한 연구를 학술적 연구의 경계안으로 편입시킨 체스터만(Chesterman 2009), 번역가의 사회적 비가시성을 노정한 베누티(Venuti 1995), 덴마크의 전문 번역가의 직업적 위상을 분석한 담과 제센(Dam & Zethsen

2009)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연구의 공통적 입장이자 공헌 점은 그동안 학문적 관심의 영역 밖에 머물러 있었던 번역의 주체, 즉 번역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번역가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이들이 처한 사회 정치적 맥락에 대한 연구를 전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번역가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 번역사회학 연구라는 보다 확장된 연구의 지평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번역가에 대한 학술적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하나의 구호로만 머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독특한 출판 시장 현황을 들여다 보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2008년 기준 한해 한국에서는 43,099편의 서적이 출판되었다. 이 중 13,391편이 번역서이며 이것은 전체 출판시장의 31%를 차지하는 숫자이다(서울경제 2008).¹⁾



위의 수치를 보면 번역가들이 우리나라의 출판시장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번역사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통해 번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대하고자 한다. 결국 은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

1) 번역서는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인기도서 순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2008년 기준 베스트셀러 30권 중 16권이 번역서였다. 동일한 해 일본의 경우 베스트셀러 30위 중 번역서는 없었다.

는지를 구조화해 주기 때문이다(Lakoff & Johnson 1980; 김성곤 2006; 임지룡, 2007).

2.2. 왜 개념적 은유인가?

은유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다른 아이디어와 연계하여 이해하게 하는 언어적 장치이다(Kövecses 2000). 은유의 본질이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Lakoff & Johnson, 1980: 23).

예를 들자면, 레이코프(1987: 388)는 ‘ANGER IS FIRE(화는 불이다)’라는 은유에 속하는 목록으로 ‘Those are inflammatory remarks’, ‘She was doing a slow burn’, ‘He was breathing fire’, ‘Your insincere apology just added fuel to the fire’, ‘Boy, am I burned up’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표현목록들을 보면, 근원영역인 불에 대해서는 낮은 온도로 타다가 불꽃으로 폭발하며, 가까이 다가가면 위험하고 불에 탄 물건은 정상적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지식이 존재한다. 반면 목표 영역인 화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약하게 지속되다가 갑자기 분노로 폭발할 수 있고, 화를 내는 사람은 위험하며, 일정 수위를 벗어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식이 존재한다. 즉 사람들의 생리적 반응이나 일상적 체험을 통해 익숙하게 느끼는 근원영역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낮은 목표영역으로 사상(mapping)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불에 대한 의미와 경험을 화에 투사함으로써 화를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그 의미에 따라 화를 경험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목표영역(화)과 근원영역(불)의 유사성에 바탕을 둔 은유에 기초하여 인지하고, 사고하며, 행동한다는 점을 시사한다(Ungere & Schmid 1996; Wierzbicka 1999).

따라서 은유는 언어의 문제는 아니라 사고의 문제라는 주장이 성립된다. 이런 면에서, 은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개념 자체를 독자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점을 알려준다(Russet et al 1994).

본 연구가 번역학자들의 번역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개념 은유라는 틀을 이용하고자 하는 데는 은유가 가지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첫

째, 은유는 체계성을 가진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화에 대한 다양한 표현목록들을 보면 이들이 단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고, 그 기저에는 일종의 체계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화는 불이다]라는 중심적 은유이다. 이와 같은 중심적 은유에 근거하여 다양한 표현목록들이 생성되고, 이들 사이에는 개념적 체계가 존재한다.

둘째, 은유는 행위지향성을 가진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은유란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규정하고 구성하는 능동적인 역할”(390)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즉 사람들은 은유를 통해 사물, 사건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에 따라 행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유는 언어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이다.

이와 같이 은유가 가지는 체계성과 행위지향성은 본 연구의 주제인 어떤 은유를 사용하여 번역을 정의하는가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예를 들어, 번역학 분야에서 역사가 오래된 은유인 *traduttore traditore*(번역가는 반역가)라는 은유는 번역가란 필연적으로 원저자의 의도와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원저자의 뜻을 거스르거나 왜곡하게 된다는 함의를 수반한다. 다시 말해서, *traduttore traditore*라는 은유는 번역불가론과 관련되게 되며, 번역 텍스트는 이차적이고 열등한 텍스트로 간주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2.3. 번역학에서 은유는 어떻게 연구되어 왔나—국내 사례

그간 은유에 대한 연구는 수사학에서부터 발원하여 철학, 문학,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응용 언어학 분야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심유희 2005). 번역학에서도 은유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Schäffner 2004).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은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혜승(2004/2008)은 TAP(Think Aloud Protocol) 실험을 도입하여 통역대학원 재학생과 전문 번역사가 은유 번역에 있어서 어떤 점을 고려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에 행해지던 ST와 TT의 비교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가 TAP을 통해 실제 번역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에 접근하고자 했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김순

영(2008)은 한영 문학 번역에 나타난 감정은유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각각의 텍스트에서 은유를 구성하는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사상(mapping)이 동일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였다. 신진원·박기성(2011)은 ST와 TT의 상호비교뿐만 아니라 TL의 비교를 통해 좀더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T와 TT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목표 영역에 있어서 TT와 TL의 차이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번역투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가 위의 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기존의 연구들이 원문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들이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분석한 것이라면, 본 연구는 국내 번역가들이 번역이라는 현상(행위)에 대해 어떤 개념적 은유를 통해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연구들이 이와 같은 시도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유라는 주제에 대한 이와 같은 미시적 접근을 발판삼아 거시적 차원에서 번역의 은유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사회학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인지적인 논의를 더욱 정교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3. 번역의 은유표현

본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신문지면이나 인터넷에 실린 번역가의 인터뷰 기사(25개 기사)를 발췌한 것으로서, 인터뷰 기사 중 번역가가 번역에 대해 언급한 개념적 은유표현을 수집하여 목록화한 것이다. 이들 번역가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문 번역가들이며, 따라서 번역가 중에서도 아주 가치적인 존재들이다. 사실 언론 인터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의 실명과 신문기사 링크 정보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또한 국내 번역가의 의견이 번역학자의 의견과 일치하거나 유사할 경우 이들 번역학자의 의견을 부가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것의 목적은 번역에 대한 은유, 즉 번역에 대한 이해가 시대나 지역, 혹은 직업(번역가 vs. 번

역학자)의 차이를 뛰어 넘어 얼마나 많이 공감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들 두 집 단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3.1. 번역은 옮김이다.

예문 1)

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 아닌, 새로운 언어를 창작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양역관).

예문 2)

번역은 100%는 아니더라도 각기 다른 문체를 옮겨서 우리나라 독자들이 즐기도록 해줘야 한다. 이게 번역의 본령이고 질이고 수준이예요 (김석희).

예문 3)

옮긴다는 행위의 속성에 옮기는 사람의 향기가 묻을 순 있겠지만, 가급적 피하고 싶다 (박현주).

예문 4)

번역이란 모체가 되는 외국어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다. 그러나 외국어만 잘한다고 번역을 잘하는 건 아니다 (안정효).

번역가들이 이해하는 번역은 “저기(there) 있는 것을 여기로(her)로 옮기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에는 이동성과 방향성이 내재하게 된다.²⁾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원천텍스트(source text), 목표텍스트(target text)라는 용어마저도 이동과 방향성을 은유하는 용어들이다.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저기에서 여기로, 혹은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 행위자는 두 공간을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번역가는 중개자(mediator), 중매인(go-between), 협상자(negotiator) 등으로 은유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피테는 번역을 보편적 세계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의 한

2) 개념적 은유 이론에서 사용되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그리고 사상(mapping)이라는 개념과 번역에서 사용되는 개념들, 즉 출발텍스트(source text), 목표텍스트(target text), 번역(translating)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이동성이 개념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지라고 주장하며 각 나라의 개별 문학을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번역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괴테 안삼환역 2010).

옮김으로서의 번역에 관련된 은유는 나이다와 태버(Nida and Taber 196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이다와 태버는 이동해야 하는 공간(space)을 일종의 강(stream)으로 이미지화하여 강물이 깊고 물살이 빠른 곳을 피하여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넘어야 할 강이 넓을수록(즉, 두 언어 사이의 차이점이 클수록) 번역이 어려워진다고 언급하였다.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1813/1992)는 옮기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독자를 원저자로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원저자를 독자에게로 데려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3.2. 번역은 걸러내는 일이다

예문 5)

번역가의 필터를 거친 언어는 때론 오역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전문성을 중요시 여기는 마니아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박지훈).

예문 6)

문학 번역은 번역자라는 ‘불완전하지만 매력적인 깔때기’를 거쳐야 한다 (김난주).

위의 예문들은 우리가 번역이라는 목표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현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거름장치라는 근원영역에 비유함으로써, 번역의 본질적인 속성이 번역가를 거쳐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보여준다.

번역은 단순히 원문을 번역문으로 옮기는 행위, 즉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 전이의 과정이 아니라 번역가(사람)라는 필터를 거치는 행위로 개념화되고 있다. 현실세계의 필터는 원하지 않는 것이나 필요하지 않는 것을 걸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근원영역의 속성을 번역에 사상해 본다면, 번역물은 번역가의 필터링 작업의 결과물일 것이고, 이와 같은 필터링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불완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번역가는 필터라는 이미지화는 번역을 굴절(refraction)이라는 은유를 통해 개념화한 르페브르(1992/2000)와 일맥상통한다. 르페브르는 필터라는 개념과 유

사한 프리즘(prism)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원문이 번역가의 이해를 통해 처리된다는 점을 들어 원문이 번역가의 프리즘을 통해 굴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텍스트가 어떻게 굴절되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번역사의 개인적인 결정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르페브르는 번역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좀더 거시적인 안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번역사는 다른 사회적 주체와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영향과 통제를 받는다고 말한다.

3.3. 번역은 무게를 다는 일이다.

예문 7)

번역은 ‘저울’이다. 번역가는 저울 한쪽엔 외국어를, 다른 쪽엔 모국어를 올려 수평을 맞춘다. 번역문이 원문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 (권남희).

예문 8)

번역은 정서의 무게를 다는 것과 같다. 즉 번역본을 읽은 사람이 원본을 읽은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다 (김난주).

예문 9)

현실적으로 번역이라는 행위 자체가 원문과 똑같은 것이 아닌, ‘거의 같은 것’을 말하는 행위다. ‘거의’라는 게 매우 넓은 오차범위를 포괄한다. 분명 차이는 있겠지 (이세욱).

위의 예문들을 통해, 우리는 번역이라는 목표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자주 접하는 ‘저울’이라는 근원영역을 통해 번역의 본질적인 속성인 원문과 번역문사이의 균형(balance)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는 수평 상황의 구현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판단과 재판의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저울은 중량을 재는 수단에서 재판의 수단으로 은유화되어 있다.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문과 번역물 사이에 발생하는 저울질은 언제나 번역물에 대한 평가로 연결된다.

과거 번역평가에서 절대적 권위를 누렸던 잣대는 등가(equivalence)의 달성 여부였다(Catford 1965; Vinay & Darbelnet 1958). 그러나 원문과의 등가의 달

성이라는 잣대는 필연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이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번역텍스트가 대상독자를 상대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중요시한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확산되게 되었다(Newmark 1981; Pisarska 1989; Reiss 1971; Vermeer 1996).

3.4. 번역은 관계맺기이다.

예문 10)

번역은 기본적으로 타자와 매우 깊은 수준에서 관계를 맺는 행위이며, 그래서 번역에는 번역자가 한 인간으로서 타자와 관계를 맺는 일반적 방식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정영목).

예문 11)

이씨는 자신이 번역했던 작가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번역”이다 (이세욱).

예문 12)

결혼과 번역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번역가는 충실하겠다는 자신의 서약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서약 때문에 본분을 다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에서 충성심이 갈라지는 충실한 중혼(重婚)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양혜원).

예문 13)

독자가 때로는 한 작가의 작품에 낯을 놓듯 자신의 혼을 몽땅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작가의 작품을 번역하는 번역가도 크나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는 그런 자신을 한 작가와 열애에 빠졌다가도 금세 다른 작가에 마음을 빼겨버리는 ‘바람둥이’라고 말한다 (권남희).

위의 예문들을 보면 번역가들은 번역이라는 목표영역을 인간의 사회적 행위인 관계맺기라는 근원영역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무수한 관계맺기를 경험한다. 이와 같은 관계맺기에는 인간의 다른 모든 사회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관이 투영되게 된다. 바람직한 관계는 존경과 사랑이라는 가치에 기본한 관계일 것이다. 존경과 사랑이 없

이는 온전한 관계맺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지속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계맺기의 가장 궁극적인 유형은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번역은 일반적인 결혼과는 상충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번역가는 원문, 혹은 번역문 사이에 있어서 일방에게만 충실할 수는 없는 딜레마에 놓인다는 점이다. 이것을 위의 예문 (12)에는 ‘충실한 중혼’이라는 상호모순적 표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다양한 작가와 ‘관계맺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번역가의 상황은 ‘바람둥이’로 은유화되었다.

그렇다면 번역가의 관계맺기 대상은 누가(무엇)인가? 위의 예문들을 보면 번역가는 여러 대상과 여러 차원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번역가는 타자(예문 10), 원작가(예문 11 & 예문 13), 혹은 모국어와 외국어(예문 12)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번역을 남녀의 관계, 혹은 부부 관계를 통해 은유화한 예는 많은 번역학자의 언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학자에 따라 번역(가)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은유화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슐라이어마허는 번역가를 남편으로 이미지화하여 아내인 모국어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서자(bastards)”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chleiermacher 1977). 반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성실의 의무가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그대로 사상되기도 하였는데, 쿠시오는 이와 같은 성실의 의무가 이중적 잣대이기 때문에 충실하지 못한 번역(아내)은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지만, 원문(남편)에 대해서는 성실의 의무가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Kuzio 2010).

3.5. 번역은 수공업이다.

예문 14)

소설가 겸 번역가 안정효씨는 번역을 ‘정밀세공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말 실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정효).

예문 15)

고려대 김화영교수는 ‘박식한 학자와 기술자(언어학자)와 영감넘치는 예술가(작가)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수공업자’라고 표현했다. 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 아닌, 새로운 언어를 창작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김화영).

예문 16)

이세욱 번역가는 “번역가에게 작가와 작품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장인정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세욱).

예문 17)

번역가에게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이 아니다. 인류 역사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토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진행형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 (안정효).

예문 18)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예누리와 덤으로 상징되는 흐릿한 계산을 미덕으로 여겨 왔고, 꼬장꼬장 따지는 사람은 쯤스럽다고 욕을 먹기도 했다. 이런 무책임한 계산법이 번역에서는 상당한 폐해로 작용한다. 부정확성에 대한 무감각은 이른바 전문 번역인들 사이에서도 만연하는 일종의 전염병이다 (안정효).

예 19)

번역가의 기본 자질은 완벽주의다. 나머지는 거기에 다 따라 간다. 완벽을 추구하면, 자신의 눈높이는 계속 올라가고,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작품(여기서는 번역물)을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 시간, 노력을 들인다 (이기수).

예문 20)

번역은 작품의 장면, 장면을 다 연결해 전체를 완성하는 작업이에요 (김난주).

위의 예문들을 보면 번역이 ‘정밀세공업’, ‘수공업’, ‘장인정신’ 등의 은유표현을 통해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 수(세)공업은 잔손질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숨씨와 식견, 품질에 대한 간간함, 한 눈 팔지 않고 한 우물만 파는 고집스러움 등을 아우르는 철저한 직업의식, 즉 장인의식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서 장인은 기술적인 성실함과 꼬장꼬장 따지는 완벽주의 습벽을 등을 통해 ‘전체를 완성하는 작업’을 하는 전문가이다.

장면과 장면을 이어 전체를 완성해나가는 노동집약적이고 공이 많이 드는 번역작업에 대한 은유는 벤야민에게 찾아 볼 수 있다.

Fragments of a vessel which are to be glued together must match one another in the smallest details, although they need not be like one another(Benjamin 2000:80)

위의 인용문을 보면, 벤야민은 번역을 마치 화분의 세밀한 조각조각을 맞추고 붙여서 하나의 화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3.6. 번역자는 가려진 존재이다.

예문 21)

그는 역자가란 “작가와 소설 작품의 대변인이 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물 흐르는 듯한 번역의 매끄러움은 원작이 돋보일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지영).

예문 22)

저자에 가려진 번역자로 사는 인생은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번역이라는 직업에 따라다니는 수식어 ‘여자가 하기 좋은 일’, ‘결혼해서도 할 수 있는 일’를 굳이 자처해서 여자가 하기 좋은 일로 제 자신을 제한하고 싶지 않았어요 (양혜원).

예문 23)

그는 양심적인 역자는 ‘투명인간’과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번역가는 독자의 눈에 보이면 안 된다. 역자의 목소리는 독자의 귀에 들려서도 안 된다.” 역자는 원문을 돋보이게 하면서 자신을 뒤로 빠지는 ‘음지의 인간’이라는 숙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효).

예문 24)

나 역시 기본적으로는 나의 ‘인장’을 남기기보다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남고 싶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옮긴다는 행위의 속성에 옮기는 사람의 향기가 묻을 순 있겠지만, 가급적 피하고 싶다 (박현주).

예문 25)

소설 쓰는 것은 다른 영역이다. 우리는 배우처럼 (각본에 따르듯) 한다. 창작하면 번역해선 안된다. 이것은 빠지기 쉬운 덫이다 (정영목).

위의 예문들은 각기 다른 번역가의 번역에 대한 개념화를 표현한 은유표현들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것은 번역가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번역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기 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대변인’이 되어서 ‘그에게 가려진’ ‘투명인간이자 음지의 인간’이라는 위치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번역이 다른 글쓰기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결과적으로 번역가는 번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존재하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부정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게 된다. 가려진 존재로서 번역사에 대한 은유로는 “익명의 존재”(Koskinen 2000: 50). “그림자(shadowy)” (Bassnet 2002: 77) 등이 있다. 또한 로제티(Rosetti 1968)는 번역사는 자신을 자제하고 창조적인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면에서 번역이 여성과 유사하다고 말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레이코프와 존슨의 개념 은유 이론을 통해서 한국의 전문번역가들이 번역이라는 행위와 직업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본 논문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문 번역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것은 번역가에 대한 연구를 번역학 연구에 있어서 향후 중요한 연구흐름으로 제안한 체스터만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또 한편으로는 번역물이 우리나라의 출판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감안한다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제안일 것이다.

본 연구는 번역가에 대한 연구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들이 자신의 직업인 번역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연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은유라는 인지적 과정을 끌어오고자 한 이유는 번역

이라는 복잡다단한 과정과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이를 은유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고구조는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을 사용하도록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구조화는 번역에 대한 개념화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번역가들은 자신의 사고와 경험을 개념 은유를 통해 투사함으로써 번역을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이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번역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6개의 개념 은유를 분류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역은 옮김이다], [번역은 걸러내는 일이다], [번역은 무게를 다는 일이다], [번역은 관계맺기이다], [번역은 수공업이다], [번역가는 가려진 존재이다].

먼저 [번역은 옮김이다]라는 은유에서는 번역가들은 번역을 “저기 있을 것을 여기로 옮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은유에서 번역가들은 “저기”와 “여기”를 드나들어야 하는 중매인(go-between)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번역은 걸러내는 일이다]라는 은유는 번역가를 일종의 필터나 깔때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은유화하고 있다. 번역은 단순히 원문이 번역문으로 옮겨지는 작업이 아니라 그 중간에는 필연적으로 번역가라는 필터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필터를 통과하였느냐에 따라 번역문이 갖는 질감과 결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학에서 번역가를 게이트 키퍼로 개념화한 은유가 일반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번역가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은유이다.

셋째, [번역은 무게를 다는 일이다]라는 은유는 번역가에게는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균형, 즉 등가의 실현이라는 임무가 원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본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무게를 다는 일이 종종 판단과 재판을 하는 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번역가는 좋은 번역과 그렇지 못한 번역, 혹은 충실성과 가독성 등의 세상의 여러 잣대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번역은 관계맺기이다]라는 은유를 통해, 번역은 번역가가 원저자, 외국어, 모국어, 궁극적으로는 독자와 형성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번역가는 이와 같은 다층적인 관계에서 자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위치를 점하여 이들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다섯 번째, [번역은 세공업이다]라는 은유는 번역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동집약적이고 공이 많이 드는 작업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은유이다. 물론 이 은유가 번역 작업의 어려움만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번역가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추구해야 할 직업윤리 혹은 직업정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번역가의 으뜸 직업윤리 중 하나는 장인정신이다. 장인정신은 예문을 통해 기술적인 성실함, 꼬장꼬장함, 진정한 애정, 완벽주의 등의 요소를 아우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번역가는 가려진 존재이다]라는 은유는 번역가는 필연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투명인간, 음지의 인간, 그림자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부분에서 우리는 ‘가려진 존재로서 번역가’가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당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직업상의 제약을 노출한 것인지 일견 불분명한 구석이 있음을 확인한다. 아마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텍스트에서는 가려진 존재로 남을 수 밖에 없었던 번역가들이 오늘날 다양한 매체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번역에 관련한 개념 은유는 이들 번역가들의 행위를 지배하고 구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를 들어 [번역가는 가려진 존재이다]라는 은유는 비록 미국의 출판시장의 경우이지만, 번역가의 이름을 책의 겉면에 표기하지 않는 출판 관행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은유는 언어적이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성곤 (2006) *글로벌시대의 문학*, 서울: 민음사.
 김순영 (2008) 「문학 작품 속의 감정은유 번역 : 개념적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본 ‘슬픔(哀)’과 ‘화(怒)’의 한영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3): 7-26.
 서울경제 (2008) 「번역서 비중 갈수록 심해진다」.
 신진원 · 박기성 (2011) 「경제 텍스트에서의 은유 번역 사례 연구: 개념적 은유

- 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2): 129-55.
- 심유희 (2005) 「영어학습에서의 은유와 환유」, 『현대영어영문학』 49(1): 113-27.
- 안삼환 (역) (2010) 『문학론』, 서울: 민음사.
- 이혜승 (2008) 「번역과 반역의 경계 고찰 - 은유의 번역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20(4): 121-50.
- 이혜승 (2004) 「노한 은유번역 연구: 과정과 결과의 통합적 고찰」, 『통역과 번역』 6(1): 155-78.
- 임지룡 (2007) 『말하는 몸: 감정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 Bassnet, S (2002) *Translation Studies: 3rd Edition*, London: Routledge.
- Benjamin, W (2000) 'The Task of the Translator: An Introduction to the Translation of Baudelaire's *Tableaux Parisiens*' in Venuti, L.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s*, New York & London: Routledge, 75-85.
- Catford, J. C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Chesterman, Andrew (2009)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or Studies', *Hermes* 42: 13-22.
- Dam, Helle V. & Karen Zethsen (2009) 'Translation Studies: Focus on the Translator-Introduction to the Thematic Section',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Studies* 42: 7-12.
- Koskinen, Kaisa (2000) 'Institutional Illusions: Translating in the EU Commission', *The Translator* 6(1): 49-65.
- Kövecses, Z (2000) *Metaphor and emotion: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zio, A (2010) *Gender, Culture and Ideology in Translation*,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 Lakoff, G (1987) *Woma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fevere, A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rame, London & New York: Routledge.

Lefevere, A (2000) 'Mother Courage's Cucumbers: Text, System and Refraction in a Theory of Literature', Venuti, L.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s*, New York & London: Routledge, 239-55.

Newmark, P (1981) *Approaches to Translation*, Oxford & New York: Pergamon.

Nida, E. & Taber, C. 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E. Brill.

Pisarska, A (1989) *Creativity of Translators. The Translation of Metaphorical Expressions in Non-literary texts*, Poznan: Wydawnictwa Naukowe Uniwersytetu im. Adama Mickiewicza.

Reiss, K (1971)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Übersetzungskritik*, Munich: M. Hueber.

Rossetti, D (1968) 'Preface to his translation of Early Italian Poets', *Poems and Translation, 1850-187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75-79.

Russet, J., Fernandez-Dols, J., Manstead, A., & Wellenkamp J (1994) *Everyday Conceptions of Emotion. An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Anthropology and Linguistics of Emotion*, Dordrecht, Boston &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Schleiermacher, F (1813/2002) 'On the Different methods of translating' In R. Schulte & J. Biguenet (Eds.),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25-38.

Schäffner, C (2004) 'Metaphor and Translation: Some Implications of a Cognitive Approach', *Journal of Pragmatics* 36, 135-69.

Ungerer, F. & Schmid, H. J (199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NewYork: Longman.

Venuti, L (1995)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Vermeer, H (1996) *A Skopos Theory of Translation*, Heidelberg: Textcontext Verlag.

Vinay, J. P. & Darbelnet, J (1958) *Stylistique comparée du français et de*

l'anglais: Méthode de traduction, Paris: Didier.

Wierzbicka, A (1999) *Emotion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Diversit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록)

본문 데이터(신문기사)

예 1. 양역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utieakari&logNo=117698253>

예 2. 김석희.

<http://blog.naver.com/zzankun?Redirect=Log&logNo=120195295622>

예 3. 박현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726211918

예 4. 안정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11/2013071101005.html

예 5. 박지훈. <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128420>

예 6. 김난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4/2013061403257.html

예 7. 권남희.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74474.html>

예 8. 김난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4/2013061403257.html

예 9. 이세욱.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726211918

예 10. 정영목. (2009). 「번역스케치」, 『안과밖: 영미문학연구』 27: 148-61

예 11. 이세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061719015&code=900308

예 12. 양혜원. <http://ch.yes24.com/Article/View/21242>

예 13. 권남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425MW091606830577>

예 14. 안정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11/2013071101005.html

예 15. 김화영.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utieakari&logNo=117698253>

예 16. 이세욱.

http://weekly.hankooki.com/lpage/08_life/200807/wk20080710111518100510.htm

예 17. 안정효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264100020&ctcd=C07>

예 18. 안정효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264100020&ctcd=C07>

예 19. 이기수. <http://cafe.naver.com/minumsa/19058>

예 20. 김난주.

<http://lady.khan.co.kr/khlady.html?mode=view&code=4&artid=201212131700191&pt=nv>

예 21. 김지영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859862&cp=nv>

예 22. 양혜원. <http://ch.yes24.com/Article/View/21242>

예 23. 안정효.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202652.html>

예 24. 박현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726211918

예 25. 정영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3460>

[Abstract]

**Metaphors We Translate By
How Korean Translators Understand Translation Metaphorically**

Kim, Youngshin
(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metaphors employed by Korean translators to discuss translation, by drawing on their interviews with the media. In order to talk about this topic, the present study fruitfully utilizes the theoretical building blocks of conceptual metaphors proposed by Lakoff & Johnson (1980). According to them, metaphors are mental mechanisms which allow us to use what we know about our physical and social experience to provide understanding of other subjects. The analysis of the data reveals 6 frequently emerging metaphors used by professional translators to talk about translation. They are TRANSLATION IS MOVING SOMETHING, TRANSLATION IS FILTERING SOMETHING, TRANSLATION IS WEIGHING SOMETHING, TRANSLATION IS BUILDING RELATIONS, TRANSLATION IS CRAFTSMANSHIP, TRANSLATORS ARE VEILED ENTITIES. Illustrating multi-faceted aspects of what we call translation, these metaphors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inherent nature of translation. This study takes a step further to argue that these metaphors not only govern and constitute the activities of translators but also have social implications. Thus, metaphors are social and political as well as linguistic.

▶ Key Words: conceptual metaphors, translation, translator studies, Korean translators

김영신

안양대학교

shiny@anyang.ac.kr

관심분야: 번역사회학, 번역가 연구

논문투고일: 2013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16일